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역곡동 300-4 2005년 8월 23일

제05-30호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추이와 시사점

정성춘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주요 내용

- 우리 기업들이 최근 설비투자를 극도로 주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는 매우 활기를 띠고 있음.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19.8%로 예상되고 있으며 비제조업의 설비투자도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 결과 전 산업의 설비투자도 11.6%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전 산업의 설비투자가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것은 15년 만임.
- 2004년도(실적) 및 2005년도(계획)의 “설비투자/Cash Flow” 비율을 보면, 일본의 전 산업이 각각 70.8%와 78.5%, 제조업 60.7%와 71.5%, 비제조업 78.8%와 84.3%의 비율을 보였음. 모든 산업에서 기업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점차 설비투자에 투입하고 있음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이 비율은 제조업의 경우, 2002년도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2005년도(계획)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 가공·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제품고도화”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소재형 산업에서는 “합리화·에너지 절감”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하여, 이 분야의 국제경쟁 격화를 반영하고 있음. 일본기업의 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이러한 설비투자는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는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크게 증가할 것임. 2004년도(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4.5%, 2005년도(계획)에는 18.1%를 기록하고 있음.
-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내용도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이에 대응하는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을 경우 양국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음.

1.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설비투자 동향 조사

- 일본정책투자은행은 매년¹⁾ 주요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비투자 동향을 조사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금년 6월에 실시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주요 기업들의 최근 설비투자 동향을 고찰하고자 함.
- 이 은행은 1956년도부터 일본산업계의 설비투자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민간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국내투자를 조사해 왔음.
- 조사방법은 조사표를 송부하는 설문조사방식이며 2005년도(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에는 같은 해 6월 25일을 조사대상시점으로 설정하고 있음.
- 조사대상기업은 조사목적에 따라 “主業기준분류”, “사업기준분류” 등 상이한 분류기준에 기초하며, 각 분류기준에 따른 금년 회답기업 수는 전자가 2,786개사, 후자가 3,336개사였음.

표 1. 조사대상기업

	대상기업 수	유효회답 기업 수	유효회답률
主業기준분류*	3,625	2,786	76.9%
사업기준분류**	4,296	3,336	77.7%

주: * 기업의 주요한 업종에 기초한 분류

** 기업의 사업부문에 기초한 분류

- 이 조사는 2004년도(실적), 2005년도(계획) 및 2006년도(계획)의 각 기업의 투자규모, 투자목적, 해외투자, 연구개발투자 등을 조사하였음. 따라서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설비투자 동향 조사는 최근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동향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
- 본 자료는 이 은행의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

가. 설비투자 동향 개요

1) 조사대상은 회계연도 기준임.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임.

- 2005년도 설비투자계획에 의하면, 제조업의 설비투자(19.8% 증가)는 버블기 이래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비제조업 설비투자(6.9% 증가)도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전 산업 (제조업+비제조업)의 설비투자(11.6% 증가)는 15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 제조업 설비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동차 및 전기기계를 비롯하여 전 업종에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는 신형 자동차 대응투자 및 제품 고도화투자가 활발하였고 관련 분야인 철강, 화학 산업에서의 설비투자를 주도하였음.
 - 전기기계 및 질업·토석, 비철금속은 초박형 디스플레이 관련 대형투자로 설비투자가 증가함.
- 비제조업 설비투자는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전력 및 운수산업은 전력의 안정공급 및 안전수송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켰고 정보통신산업에서는 제3세대 휴대전화 투자가 증가하였음.

표 2. 일본기업의 설비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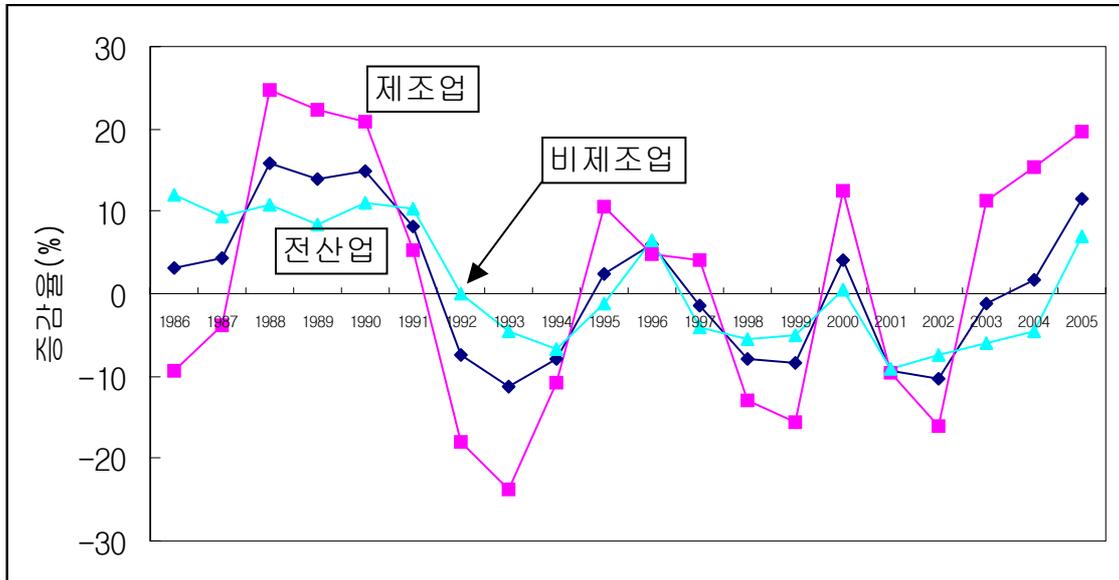
(단위: 억 엔, %)

	2004년도(실적) (공통회사 2,522사)			2005년도(계획) (공통회사 2,786사)			2006년도(계획) (공통회사 1,352사)		
	2003년도 (실적)	2004년 도(실적)	증감률 (04/03)	2004년 도(실적)	2005년 도(계획)	증감률 (05/04)	2005년 도(계획)	2006년 도(계획)	증감률 (06/05)
전 산업	189,537	192,713	1.7	200,449	223,630	11.6	70,370	69,632	▲1.0
제조업	59,232	68,381	15.4	72,844	87,277	19.8	18,511	18,859	1.9
비제조업	130,305	124,333	▲4.6	127,605	136,353	6.9	51,859	50,773	▲2.1

자료: 일본정책투자은행, 『2004·2005·2006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 일본기업의 장기적인 설비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도를 저점으로 설비투자는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는 주저하듯이 1992년도 이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고 1995~1997년도, 2000년도의 단기적 경기회복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감소함.
- 금번의 설비투자 회복추세는 2003년도부터 시작되었고 2005년도의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버블붕괴 이후의 최고 수준임(1991년도 5.3%→2005년도 19.8%).
-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던 비제조업 설비투자도 2005년도에 플러스로 전환되어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비제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그림 1. 1986~2005년도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자료: 일본정책투자은행, 『2004·2005·2006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나. 기업 여유자금에서 설비투자가 차지하는 비율

- 최근 일본기업들의 수익성은 급속히 회복되고 있음. 수익성 회복으로 발생한 기업의 여유자금 중 설비투자에 투입되는 자금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기업의 설비투자 욕구가 매우 왕성함을 보여 주고 있음.
- 2004년도(실적), 전 산업의 매출규모는 4.0% 증가, 그 중 제조업 6.6%, 비제조업 1.3%의 매출증가를 보이고 있음. 2005년도 매출규모(계획)는 전 산업 3.1%, 제조업 4.2%, 비제조업 1.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기업 경상이익 증가율은 2004년도(실적) 전 산업이 21.3%, 제조업 28.7%, 비제조업 12.9% 등 큰 폭의 증가율을 실현하였음. 그러나 2005년도의 경상이익 증가율(계획)은 0%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매출 및 이익구조하에서 일본기업들은 여유자금의 더 많은 부분을 설비투자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일본기업의 수익구조

	매출 증가율		경상이익 증가율	
	1,851사	2,022사	1,851사	2,022사
	2004년도(실적)	2005년도(계획)	2004년도(실적)	2005년도(계획)
전 산업	4.0	3.1	21.3	0.0
제조업	6.6	4.2	28.7	0.4
비제조업	1.3	1.6	12.9	▲0.6

자료: 일본정책투자은행, 『2004·2005·2006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 2004년도(실적) 및 2005년도(계획)의 “설비투자/Cash Flow” 비율²⁾을 보면, 전 산업 70.8%와 78.5%, 제조업 60.7%와 71.5%, 비제조업 78.8%와 84.3%의 비율을 보였음. 이 비율은 제조업의 경우, 2002년도를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였고 비제조업의 경우에도 2005년도(계획)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음.
- 그러나 이 비율은 아직 100%를 상회하지는 않고 있어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면서까지 투자를 확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버블이 피크에 달했던 1991년도의 이 비율은 전 산업 133.0%, 제조업 116.3%, 비제조업 148.4%에 달함. 이 비율은 1990년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제조업의 경우 2002년도 56.2%, 비제조업의 경우 2004년도 78.8%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음. 이후 양 부문에서 이 비율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었음.

표 4. 설비투자/Cash Flow 비율의 추이

	전 산업	제조업	비제조업
1991	133.0	116.3	148.4
1992	127.4	103.8	143.8
1993	121.8	86.8	145.6
1994	113.8	76.3	138.1
1995	107.9	78.2	131.0
1996	110.5	78.7	133.6
1997	105.6	81.8	127.2
1998	101.8	80.6	116.6
1999	91.0	63.1	113.1
2000	91.8	65.7	109.5
2001	86.4	74.0	94.1
2002	75.7	56.2(최저점)	88.5
2003	73.9	57.8	85.1
2004	70.8(최저점)	60.7	78.8(최저점)
2005(계획)	78.5	71.5	84.3

자료: 일본정책투자은행, 『2004·2005·2006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2) 설비투자/Cash Flow 비율 = {설비투자/(경상이익/2+감가상각비)}*100

- 설비투자/Cash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일본기업들이 과대한 부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수익의 상당부분을 부채상환에 투입해 왔기 때문임.
- 그러나 부채상환이 일단락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점차적으로 설비투자에 투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추정됨.

다. 업종별 설비투자 동향

- 설비투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를 넘는 주요 업종의 설비투자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주요 업종으로서는 화학(5.2%), 전기기계(8.6%), 자동차(8.8%), 도소매(5.1%), 운수(8.4%), 전력(9.3%), 정보통신(12.3%), 리스(18.8%) 등이 있음.
- 화학: 대형 신약제조설비투자가 일단락된 의약품에서는 설비투자가 감소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석유화학 관련 분야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수지의 생산능력 확대투자가 증가하였고 초박형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등 정보전자재료분야에서도 생산능력 확대투자와 연구소 건설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전기기계: 초박형 디스플레이 관련 증산투자가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회사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신형차 투입이 증가하여 생산능력 확대투자가 급증하였고, 부품업체들도 제품고도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도소매: 투자가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투자가 일단락되었기 때문임.
- 운수: 안전대책, 편의향상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였고 도로화물 관련의 터미널 정비, 차량투자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투자가 증가하였음.
- 전력: 전력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송배전망 확충 등에 투자가 대폭적으로 증가함. 1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 정보통신: 제3세대 휴대전화, 광섬유망 증설 관련 투자가 급증하였고 방송의 경우 지방국의 지상파 디지털화 대응투자가 증가하였음.

라. 목적별 설비투자 동향

- 최근의 설비투자를 투자목적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적으로 “생산능력 확대”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가공·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제품고도화”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2005년도의 비중은 1986년도 이후의 최대치임.
 - 이는 가공·조립형 산업에서의 국제경쟁 격화에 따라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임.
- 또한 화학, 철강, 일반기계 등 소재형 산업을 중심으로 “합리화·에너지 절감”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최근의 고유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일본기업들이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에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도 최근의 축소경향을 벗어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금액 기준의 증가율은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 분야에서 증가하였음. 이 분야의 국제경쟁 격화를 반영하고 있음.
- 소재형 산업에서는 가공·조립형 산업과는 달리 “유지·보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 투자목적별 설비투자(2005년)

(단위: %)

	전 산업 (2,234사)		제조업						비제조업	
	2004	2005	2004	2005	소재형		가공조립형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능력확대	38.2	37.4	31.4	30.6	25.3	25.6	35.3	32.7	42.2	41.9
신제품·제품고도화	9.4	9.5	18.4	18.8	7.6	7.1	24.7	26.2	4.2	3.4
합리화·에너지 절감	7.3	7.8	13.7	13.9	16.2	16.3	12.6	12.6	3.6	3.8
연구개발	4.5	5.0	7.9	8.6	7.0	6.9	8.8	9.9	2.4	2.6
유지·보수	18.8	20.9	16.5	17.1	29.5	29.0	8.9	9.9	20.1	23.4
기타	21.8	19.4	12.0	11.0	14.4	15.1	9.7	8.7	27.5	25.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일본정책투자은행, 『2004·2005·2006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 이상의 동향으로부터 일본기업의 목적별 설비투자의 특징을 보면,
 - 첫째, 가공조립형 산업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둘째, 소재형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정의 합리화, 에너지 절감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의 양 부문에서 각각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적인 설비투자를 확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마. 해외투자 동향

-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는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2004년도(실적)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4.5%, 2005년도(계획)에는 18.1%를 기록함.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체 해외투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동차, 화학, 유전개발 관련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가공·조립형 산업이 약 70% 전후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소재형 산업은 10%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2005년도(계획) 북미가 전체 해외투자의 30.2%, 중국이 그 뒤를 이어 13.8%를 차지하여 유럽(12.7%)을 넘어서고 있음. 2004년도에 비해 세계 전 지역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대중 투자는 무려 55.6%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의 급증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표 6. 해외에서의 설비투자

(단위: 억 엔, %)

(1,579개사)	금액				증가율
	2004년도	구성비	2005년도	구성비	2005/2004
제조업	18,076	81.4	21,160	80.6	17.1
소재형	1,704	7.7	2,738	10.4	60.7
가공조립형	16,133	72.6	17,588	67.0	9.0
비제조업	4,139	18.6	5,084	19.4	22.8
북미	6,145	27.7	7,930	30.2	29.0
유럽	3,064	13.8	3,342	12.7	9.1
아시아	8,642	38.9	10,349	39.4	19.8
중국	2,326	10.5	3,619	13.8	55.6
기타 아시아	6,316	28.4	6,730	25.6	6.6
기타	4,365	19.6	4,624	17.6	5.9
합계	22,215	100	26,245	100	18.1

자료: 일본정책투자은행, 『2004·2005·2006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 해외투자/국내투자 비율을 보면, 2004년도(실적) 전 산업 23.9%, 제조업 48.6%(소재형 19.5%, 가공·조립형 59.9%)임. 2005년도(계획)에는 약간의 증가를 보여 전 산업 25.4%, 제조업 49.4%를 보이고 있음.
- o 따라서 일본기업은 전 산업에서는 국내설비투자의 약 4분의 1 규모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국내설비투자의 약 절반 정도를 해외에 투자함을 알 수 있음.
- o 제조업 중 수송용 기계의 경우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가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표 7. 해외 설비투자/국내 설비투자 비율

(단위: %)

	전산업	제조업	소재형	가공조립형	주요업종				
					화학	수송기계	전기기계	일반기계	석유
2004년도	23.9	48.6	19.5	59.9	20.2	97.7	28.9	66.2	15.5
2005년도	25.4	49.4	26.0	58.3	30.2	96.2	21.9	56.2	39.5

자료: 일본정책투자은행, 『2004·2005·2006년도 설비투자계획조사』.

- 위의 고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음.
- 첫째,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 투자의 증가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둘째, 가공·조립형 산업(자동차, 전기·전자)이 해외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등 고도기술이 필요한 산업의 해외투자는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o 따라서 일본기업은 완성품의 가공조립부문은 해외현지에서 생산하면서 이에 필요한 부품소재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공급하는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3. 일본기업 설비투자 동향의 시사점

- 일본기업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최근 우리 기업의 설비투자는 수출 대기업의 수익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체 혹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음. 한편 건설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와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는 투자임.

- 이와는 달리 일본기업들은 최근 두 자릿수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설비투자 내용에서도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격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이에 대응하는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 한, 양국의 경쟁력 격차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일본기업들은 최근 “신제품·제품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단순히 기존 제품의 생산능력을 확대시키는 투자를 줄이면서 새로운 제품생산, 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와 매우 경쟁적인 조립·가공형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거대한 장치와 에너지 소모가 큰 화학, 철강 등 소재형 산업에서 일본기업들은 생산과정의 효율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음.
- 이는 원유, 광물, 철강 등 소재가격 급등에 대비한 비용절감형 투자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최근 일본기업들은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음.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은 장래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처를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더욱 확대시켜야만 일본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음.